진리 평화 창조

발행인 김 동 선
발행인 성 함 용
편집장 김 형 만
외 대 신 문 사
전화 ☎ 7128 (직통)
우편번호 13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270-1
인쇄인 조선일보사 발 무 영

외대학보

(1958. 3. 27. 제 3 종우편물인가)
(등록번호 제다 253호) 한국외국어대학 발행

제 3 0 4 호
<주간>
1980년 10월 10일
매주 금요일 발행
(1년 구독료 5천원)
등록 1960년 7월 1일
창간 1955년 4월11일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본대학전기화 난항예상

전국 총학장 대전회의에서 드러나

본대학이 후기대학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8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 85개 대학 총학장회의에서 「전기(前期) 대학으로 승인 신청을 한 8개대학의 총학장들이 전·후기 입시전형을 재조정하라는 문교부의 종용을 받아들여 원칙적으로 지난 80학년도와 동일하게 후기대학으로 남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학별 전·후기를 정하되 전기를 택해야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한두개 대학에 예외를 두기로 합의한것으로 알려져 본대학이 전기화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전기화대비, 과감한 투자 절실

문교부가 이같이 대학별 전형일자를 재조정토록 직권발동을 암시한것은 전기로만 대학들이 몰려 선택폭을 좁힌다는 이유에 기인한 것이다.

이번 대전에서의 총학장회의도 이같은 문교부의 직권발동 암시에 일단 응복한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대학의 자율적운영에 「분명한선」이 있음을 드러냈다.

현재 후기대학중 전기로 승인오염 한 대학은 본대학을 비롯 성균관대, 한양대, 단국대, 동국대, 홍익대, 숭전대, 국민대등 모두 8개 대학이다.

해 설

본대학을 비롯 종래의 후기대학중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S대, H대등 3개대학중에 어느 한 대학만이 전기화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으며 오히려 제3의 대학중에 전기대로 전환하는 대학이 나올 가능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왜냐하면 문교부의 기본방침이 전후기를 균형있게 조정한다는 것으로 집적인 균형도 갖안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 전후기의 양·질적 균형을 조정하는는 선에서 전기화가 1~2개 대학에 한정되어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금까지 후기로만 전형해왔던 본대학은 1980학년도 신입생모집안에서 여시생균 249.7점으로 후기 1위였으며 평균편차도 타대학에 비해 좁은 수준이어서 고른 실력분포와 함께 높은 집적수준을 유지해 왔다. 또 그동안 문제시 되어왔던 「후기우유증」은 계속되어왔으나 우수한 자질의 학생을 다수 입학시킬수 있었다.

그러나 현 교육제도하에서 본대학의 전로는 매우 불투명하며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본대학이 후기로 남아 있을 경우 신입생의 예시생균은 20에지 30점 정도 학학할 것으로 보이나 평균편차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수준은 떨어지나 얼마간의 평준화가 이루어질것으로 보여진다.

또 「후기우유증」은 예년보다 심해질것으로보이지만 이경우 다소의 우수한 학생을 확보할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비해 81학년도에 전기전형을 실시할 경우 신입생 평균성적은 후기와 동일수준을 유지할것으로 보이나 평균편차는 매우 좁아질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러나 우수학생비율은 크게 격감하여 전반적인 수준하락이 예견되며 현재까지 본대학이 지켜온 「질적수준의 선」을 지키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같이 본대학은 81학년도에 후기로 잔류하든, 전기대가 되든 얼마간의 하락추세가 예견되고 있어 이에대한 대안을 찾지 않는한 본대학의 종합학도 사실상 무의미해질수 있는 주인(主因)이 될것으로 보여지고있다.

그러나 전기화·종합화에 대한 본대학의진로에대해관계자는현본대학을 「전기화에대비한 여건조성」을 위한 방안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각적 지연은 본대학이 후기로 남을 가능성을 높여주고있다고 할수있고 재단은 소극적자세에서 벗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문제에 임해야 할것이며 성실한 교육투자를 확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본대학의 질적하락방지및 종합대학으로서의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절실히 요청되고있다.

79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거행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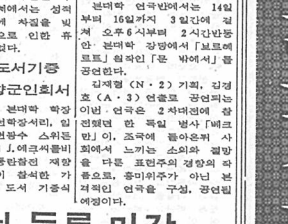
박사 1,석사35,학사124명 배출

79학년도 학부및 대학원, 무역대학원의 마지막 후기학위수여식이 지난10월 8일 오후 2시부터 본대학 강당에서 거행되었다.

김동선학장서리를 비롯, 김홍배재단이사장, 김계수대학원장, 이희준 무역대학원장, 각 부처장및 4개학부장, 대학원및 무역대학원 교학과장, 졸업생들의 친지및 학부형등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열린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박사 124명, 대학원석사 11명, 무역대학원석사 24명, 박사 1명에게 학위가 수여되었으며 무역대학원의 연구실적증명서 취득자 4명, 연수증명서 취득자 7명에게 연수및 연구실적증서가 수여되었다.

이날 수여식은 이광구 시청자교육실장의 사회로 국민의례에 이어 임진권교무처장의 학사보고가 있은 다음 학사학위, 석사학위, 연구실적증서, 연수증명서및 박사학위등의 학위와 증서가 수여되었고, 이어 학장치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박사학위를 받은 박문식씨는 연구논문 「The Romantic Idea of Immortality」로 문학박사 학위가, 대학원 철어과의 윤인섭씨의 중국어과 1명, 독일어과 2명, 일본어과 4명에게는 문학석사 학위가, 동국지역 연구학과의 이영실씨의 1명과 아랍·중동지역연구학과의 홍성민씨에게는 정치학석사학위가 수여되었다.



◇김학장서리가 학위를 수여하고있다.

용인 신입생 이전

81학년도 2학기부터

내년 3월 용인교사(校舍)로 이전하기로 했던 용인캠퍼스 신입생 300명이 81학년도 1학기거지 본교에서 수업을 받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80학년도 용인캠퍼스 신입생 300명을 비롯 81학년 신입생 780명등 1080명이 본교에서 수학할 가능성이 짙어져 심각한 학내포화상태를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81학년도의 본대학 재학생의 총수는 기존의 재학생 약 4,300여명을니뿌, 내년도 신입생 3,185명 (예상수치) 등 모두 7,485명선이다.

3학년 수학여행

27일부터 11월3일까지

3학년 재학생들에대한 수학여행이 오는 10월27일에서 11월 3일간의 중간고사기간에 실시된다.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수학여행의 예정인원은 대체로 5백명안팎이 필것으로 보이며, 수학여행으로 인한 3학년의 중간고사 결시는 수학여행루 비공식적으로 교수의 재량에따라 시험을 실시, 성적에 반영하는 사무조치를취할것으로 보인다.

예년의 경우, 수학여행 후 시험공고가 발표되어학생들에게 파종한 부담을 주어왔고, 학계부처에서는 성적처리의 일관성에 차질을 빚는등 수학여행으로 인한 류유증이 심각했었다.

ROTC축제

11일 오후 6시부터

본대학 ROTC의 축제인 제19회 외항무제 (外郎武祭)가 11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정사영학군단장 (대령)을 비롯한 교관단과 ROTC 출신의 본대학 재직교수및 후보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 밤모스호텔에서 열린다.

외항무제는 후보생간의 유대감을 공고히하고 선후배의 중점강장양을 목적으로 열리는 행사이다.

스위든어도서기증

서(瑞)재향군인회서

지난달 26일 본대학 학장실에서는 김동선학장서리, 임권권교무처장, 변광수 스위든어과장, Dr.오게 L에르씨클비뭇 스위든한국동한협회 재향군인회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위든어 도서 기증식이 있었다.

2차 등록 마감

등록률 93%로 추계돼

지난 4일 본대학 사무처에서는 2차마감을 끝낸 80학년도 금학기 등록률을 93% 추계했다.

사무처에서는 지난 9월27일 1차등록마감을 실시했으나 장학금 및 저소득장학금 지급에 대한 결정이 지연돼 정확한 등록률을 집계할 수 없었음을 밝혔다. 또 근로장학생의 선발이 지연되고 있어 최종등록률은 추후에 집계될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도 계속 등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졸업예정자 졸업시험

11월14,15일로 연기

교무처에서는 80학년도 졸업예정자 졸업시험을 당초 실시예정이던 10월13일, 14일에서 11월14일, 15일로 연기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외국어학부와 교육사회학부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졸업시험은 14일에 필답시험 (상독·문법·작문·파괴선택과목) 15일에는 회화 인터뷰실습 또는 시청각교육시험을 각각 실시하게 된다.

축제의 막을 열어드는 외문로에는 현란한 현수막들이 어지럽게 걸려있다.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에 무관심한 것들 사이에서도 어제를 돌이켜보는 지혜의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

외문축제

외문축제 일정 확정

오는 17일과 18일 양일간 거행되는 제7회 외문축제 일정이 확정되었다.

17일 모의올림픽 폐막식과 동시에 개막되는 축제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열리는 방송제를 필두로 시작된다.

6시에서 8시까지는 민속전시및 만랑과 솟불제로 여어지는 「부모님을 모시고」행사가 있으며 그와 동시에 대강당에서는 「미네르바의 밤」이 진행된다.

「미네르바의 밤」은 1부 문학제를 비롯하여 2부 장연제, 3부 음악제로 나누어 공연된다.

외대문학반과 해외문학반 공동 주최로 열리는 문학제는 시낭송과 공로동으로 엮어지며, 장연제에서는 김찬삼교수가 「세계여행 얘기」이라는 주제로 장연할 예정이다. 또한 독요음악반 주최로 거행되는 음악제로 1부 클래식과 2부 경음악으로 나누어 진행되어진다.

축제 이틀째인 11일에는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외국인교수 노래자랑이 있고, 4시부터 6시까지는 대학원장 잔디밭에서 「sing along」행사가 있으며, 6시부터 2시간 동안 대운동장에서 「함께 걸음을」이 진행된다.

한편 15일에는 「미네르바 축제」로 불려졌던 여학생 축제가 올해는 「존삼즈 대 존삼즈」로 개칭되어 열린다. 한때와 연대들의 학생의 참조 출연및 카니발 등은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2시간에 걸쳐 거행된다.

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영상실에서는 13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79년 세민제 실황녹화 방영과 더불어 13일에서 16일까지는 학도호국단 주최로 「외대명인전」을 벌이게 된다.

명분(名分)의 논리

▲동시적 (通時的) 인 역사의 한 기점(起點)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그 시대의 일부에 의해서 수연성으로 비쳐졌다쳐도 제한 역사에서는 결연적이었다는 결론으로 귀착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는 필연적 전개」라는 명제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시대적 전기 (轉機) 는 소수의 의지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시대를 살았던 대다수 의의지가 형성한조건위에서가능하다는 당위 (當爲) 의도를 가능하게 해준다.

▲선택된 소수의 힘이란 이런 조건의 성숙 위에서만 발휘될 수가 있다. 쳐올부터 소수 (minority) 란 다수 (majority) 의 배경을 상정 (想定) 하지 않고는 존재의 가치조차가 의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정치체제이든 결국 정치 (政治) 의 정당성을 얻는다는 것은 곧 다수— 민 (民) 으로 연결되는「자력」의 지지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치에 있어서 명분 (cause) 이 중요시되는 것 또한 필연적이라고 할가.

▲「역사는 획득된 기탁(挖掘) 이 세대에서 세대에 전승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진보」라고 사가(史家) 가 말할 때, 여기서의 「사회적 획득」은 역사이성 (歷史理性) 적인 입장에서 「다수」의 자유복지 실현요로서의 획득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국, 전기 (前記) 한 바의 「명명론」이 통치받는 자의 행복을 위하여 전제되는 것임을 생각해 본다면, 다수의 자유복지가 실현되어 잠수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정치는 이루어 진다고 할것이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국가와 국가 혹은 국민과 위정자 (爲政者) 간에 세워진명분은 계약관계로서 존재의의가 증명되 인정되어왔다.

비록 심리추구와 힘이 정의 (正義) 라는 등식이 무리가 없는 시대이지만, 힘이 제일을 발휘할 수 있는 선행조건요서로 명분은 더욱 중시되는 것이다.

다만 명분의 정당성 여부를 논할 때, 우리가 해기 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획득」이 명분을 앞세운 이데올로기에 잠식당하지 않을때야 비로서 「역사는 진보한다」는 신념이며, 역사를 이성이 주도하는 한 제관화된 역사가 진위 (眞僞) 를 가려 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다.

<최문서>

외대문학상 현상모집

제 18회 —

외대문인의 등용문

11월말 작품 마감

본보에서는 제18회 외대문학상 응모작품을 다음과같이 모집합니다. 제정이래 18년이란 연륜을 거듭하면서 기성문단에 기라성같은 문인들을 다수 배출한 바 있는 외대문학상은 외대인들의 문학풍토를 진작하는데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과 함께 외대인 여러분들의 문학적 자질이 유감없이 발휘될 본 문학상에 많은 응모있기를 바랍니다.

모집부문 : 시 (2편이상)
소설 (60매내외)
평론 (50∥)
번역 (50∥)
접 수 처 : 외대학보 (학생회관 309호)
마 감 : 1980년11월말
심사위원 · 상금 : 추후발표
1980년 10월

외대학보

社員募集

근검·절약·저축의 생활화

現代는 만족스러운 職場을 創出하는 企業입니다

一. 募集部門 · 人員 및 資格

募集部門	人員	資格
技術職	土木工學, 建築工學, 電氣工學, 機械工學, 造船工學, 産業工學, 航海學	○○○名
事務職	經營學, 經濟學, 貿易學, 法學, 行政學, 英文學, 電子計算	○○○名

●4年制大學 該當學科 專攻者로서 1981年 2月 卒業豫定者 및 既卒業者.
●1952年1月1日 以後 出生한 兵役畢 또는 免除者. (特例補充役 編入 該當者도 志願 可)
●海外 旅行에 缺格事由가 없는 者.
●ROTC 및 海·空軍 將校出身 환영.

二. 銓衡方法
① 1次 : 筆記試驗(專攻, 英語)
② 2次 : 面接(1次 合格者에 限하여 實施하며 日時 및 場所는 1次 合格者 發表時 公告함)

三. 筆記試驗 日時 및 場所
① 日時 : 1980年 11月9日 (日) 09 : 00
② 場所 : 明知大學 (西大門區 南加佐洞)

四. 提出書類
① 入社志願書(當社 所定樣式) ····· 2通
② 大學全學年 成績証明書 ····· 1通

五. 志願書 交付 및 接受
① 期 間 : 1980年 10月16日 (木) ~11月5日 (水) 17 : 00 (但 公休日도 접수함)
② 交付處 : 各大學本部 및 願書接受處.
③ 接受處 : 서울시 鍾路區 世宗路 178 現代빌딩 1층 現代人力管理委員會
電話 : 70-5211~20 (交) 555

六. 其他
① 郵送된 書類는 接受期間內 到着된 것에 限함.
② 書類 郵送者의 受驗票는 1980年 11月8日 (土) 午後2시에 願書 接受處에서 交付함.
③ 其他 詳細한 事項은 願書 接受處에 問議할 것.

1980年 10月

現代人力管理委員會

제534돌 한글날 기념논단

한글신문과 가로쓰기 — 그 과거와 현재 및 성과와 전망

1. 한글과 한자의 투쟁

우리나라 신문이 걸어온 발자취는 좁은 지면에 놓고 한글과 한자의 자리다툼의 연속이었다고 할수있다.

한자를 몰아내고 한글만으로 신문을 만들려는 여러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한자는 어느틈에 은밀기게도 파고 들어 오히려 한글이 밀려나기도하는 일치박뒤치박이 반복되었다.

한글과 한자간에 계속되고 있는 오랜 투쟁의 역사라고나 할까.

그러면 한자는 과연 우리 신문에서 떼어버릴 수 없는 존재인가. 그리고 한글만으로 신문을 만드는일은 한자를 빌어다 이룩한 우리의 오랜 문화유산을 어버리는 것이 되는가를다 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우리 신문의 지면에서 한글과 한자가 어떤 위치를 차지 해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우리 나라 최초의 신문은 순한문으로 시작되었다. 1883년에 나온 한성순보 (漢城旬報) 는 순한문으로 찍혀졌으나 제 잡에 유 길준 (兪吉濬) 이 창간을 준비할 때에는 국한문 혼용으로 내려했다가 최종되고 말았던것인데 당시 사회의 사정 요로서는 어쩌서 내는 신문간 국한문 혼용으로 제작하는 것은 우리였다 할수 ...나. 그러나 그보다 3년 뒤에 발간된 한성 주보 (漢城周報) 는 새 종류의 기사가 합계 차지함은 신문이 되어 나왔다.

그것은 한자전용의 기사와 국한문 혼용기사, 그리고 한글전용의 세가지 기사였다. 순한문 한성순보보다는 훨씬 민중에 친근한 체재였던것.

신문이란 만민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뛰넘고의 관리들도 나부나갔 할았것이고. 그리한 힘찍은 마로는떼는 조금의 주저만도 없었던것이다. 뒤연 김의 관리들이란 한성순보나 주보가 모두 정부기관인 박문국에서 발간되었고 신문을 만들때 사관들은 주사(主事) 사사(司事) 등 정부관리였기 때문이다.

이 두 신문이 중단된후 1896년에 나온 독립신문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라 할만큼 파격적 한글 전용의 신문으로 만간 피었던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사실이다.

아마 오늘의 신문을 놓고는 한글만으로 만들면우 민문화를 크게 퇴보시킨다고 꾀이를 들우는 사람일지라도 독립신문이 당시에 한글전용을 했기때문에 우리문화창달에 어떤 역할을 한 것이고 말하기는 못할 것이다. 독립신문은 창간사에서 「우리신문이 한문으로 아니쓰고 다만 국문으로만쓰는것은 상하귀천이 다 보게함이라」고 밝히고있다.

독립신문보다 한해 앞서 1895년 초에 일인들이 창간하여 발간한한성신보 (漢城新報) 가 국한문 혼용신문이었던것도 주목할만한일이다.

2. 황성신문의 혼용과 데국신문의 전용

독립신문의 한글 전용은 조선조말 우리나라 신문의 초창기에 있어서 신문역사의 전통(傳統)이 되었다. 조선크리스도인회보(1897. 22), 그리스도신문(1897. 4. 1) 협성회회보(1898. 1. 1), 매일신문(1898. 4. 9), 미한신보(1898. 4. 10), 미국신문(1898. 8. 10)등이 모두 한글로만 제작 발간되었다.

그러나 황성신문 (皇城新聞, 1898. 9. 5)과시사총보 (時事叢報. 1899. 1. 22)가 국한문을 혼용하면서 한말의 신문은 한글전용과 국한문 혼용으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한일합방이 임박하기 황성신문이 폐표하는 국한문혼용신문과 데국신문이 대표하는 한글전용신문이 나란히 발간되어 한국을 비롯 사방팔을 황성신문을 구독하고 주로 부녀자들과 한자를 모르는 서민층을 데국신문을 보았다.

한말 가장 강경한 항일신문이었던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도 1904년 창간시때에는 한글전용으로발간되었었다 이듬해 8월부터는 국한문 혼용으로 바꾸었다가 1907년 5월에는 한글판은 따로 창간하여 국한문과 한글판 두가지 신문을 발간했다.

대한매일신보는 한글판 창간사와 1908년 3월에 실린 「국한문의 경중」이란 연속논설등을 통해 한글은 천대하는 풍조를 개탄하고 남의나라 글인 한문을 주인으로 알고 한글은 보다는 미나 쓰는 종으로 알기때문에 자기나라란 입수이여 기고 남의 나라를 제다보는 노예근성을 갖게 된다고 꼬집었다.

한말의 신문들이 한글전용을 단행한것은 이와같이 자주와 개화운동의 근본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대중이 배우기 쉽고 널리 알릴 수 있는 한글만 사용해야 나라가 부강해질것이며, 남의 글인 한문의 속박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자주를 찾아야 나라의 자주도 이룩할수 있다고 강조한다.

3. 해방후의 몇차례시도

일제치하의 신문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후에 중외일보, 조선중앙일보) 등이 모두 국한문혼용이었으나 사회면만은 한글을 쓰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리한 원칙은 광복후의 우리나라 모든 신문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신문이 한글전용을 해야 하느냐 한자를 섞어 써야 하느냐 섞어쓴다면 한자는 어느정도로 써야 하느냐하는데 대해서는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산만않은 이 대립되어 왔다. 결론부터 말해서 서울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일간신문 가운데 한글을 전용하는 신문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이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인문계의 대답이라 할수 있을것이다. 중앙일간지 가운데는 그중만 서울신문과 한국일보가 한글전용. 또는 한글전용을 위한 중간차원의 제자단 단행한지이 있었다.

서울신문은 한만 대한매일신보가 그보다 2년전인 1946년10월18일부터 우리말과 글만 전용하는 당시에 한다 와 서울신문을 따로 만간했으나 1959년초부터 한글판은 중단해 버렸다. 그후 10년만인 1968년11월22일에는 서울신문 창간23주년을 맞아 이번에는 한글전용신문으로 파갈히 개혁해 보았으나 몇년이 되지않아 도 마시 국한문혼용신문으로 되돌아갔다. 한글전용신문으로 발간되는 동안 서울신문은 한글전용에 앞장도록 제목의 음어및 글자배열·편집체제, 기사 문장등을 연구하기도 했다.

한국일보는 한글전용을위한 과도적인 단계로 1970년부터 한자 제목에 한글을 음을 다는 루비활자를 채용했으나 업무부에는 이를 없이 버리고 말았다. 제목뿐 아니라 본문에도 한자옆에 한글로 음을 다는 방식은 이미 한말에 만세보 (萬歲報. 1906. 6. 17)가 처음 시도한바 있었고, 일제때에는 동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每日申報) 가 1928년1월1일부터 루비활자를채용했으나 2년반만인 1930년6월11일부터는 이를 폐지한 일이 있었다.

일선이신문이나 중판물에는 오랜전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는 루비활자가 우리 신문에 정착하지 못한 것은 제작상의 번거로움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점 외에도 꾀이 단순한 일본글에 비해서 한글은 꾀이 복잡하여 작은 루비글자로 쓰면 글자가 잘 보이지않는다는 등의 불합리한 애로때문에 성공하지못한것이다.

최근에는 중앙일보 (中央日報) 가 제목에한해서 부분적으로 조심스럽게, 아주 드물게 한자에 토를 달고 있다.

신문의 한글전용은 이와같이 몇차례에 걸쳐서 시도와 좌절을 되풀이했다.

60년대 이후로는 인문계가 장기적인 대책을 갖지 못한채 정부가 한글전용을 채용 장려이 빌고 나가니 인문계도 이에 따라 한글신문을 주전해 보다가 정기적한 빌고 방기기가 이와같이 어려차에 있었던데 에 한때 한글전용 신문은 강이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등이 발간하는 어린이신문과 몇개 미학신문들이 있을 뿐이다.

어린이신문의 경우는 국민학생 또는 중학생이 한자가 쉬인 신문을 읽을수 없으므로 한글로 제작하는 것이지만, 대학의 신문만은 대학생들조차 한자로된 신문을 읽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일반신문을 한자가 없으면 뜻통사고 (社告) 를 내 의 신문들은 학술논문도않이 게재가 되므로 일반신문에 못지않게 한자의 필요성이 더 커야할것이다. 그러나 대학신문들이 한글전용을 앞서서 단행하는것은 한자가 없으면 신문을 못만들거나, 문화의 창달이 역행하는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수 있을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신문들이 신문업계라는 일종의 카모플라쥐라는 틴 단체를 통해서 일제히 한글을 전용하거나 한자를 그대로 쓰거나 할것이 아니라, 가령 일간계 중앙지가운데 한두개등만 한글만으로 제작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대육이나 지금 우리나라의 신문들이 일본의 신문들을 너무나 절대적으로 모방하고 있는데서 해방되는 신문이 하나 등장이라도있어야 하겠다는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어떤 종합잡지는 한글전용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파괴하기 제트리고 한글전용으로 성공했던 예가 있었다. 물론 그 잡지는 한자를 한글로 표기하는 식의 한글전용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를 고르고 다듬어 잡지를 만드는 정성을 보였고, 한글전용에 대한 고집과 확신을 가졌기에 성공할수가 있었을 것이다. 신문이라고 그러지 말라는법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 단행본들은 한글전용이거나 한자를 대폭줄이고 있으며 특히 두드러진 현상으로는 가로쓰기를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신문만은 반드시 내려거나 할것이 아니라, 가령 일간계 중앙지가운데 한두개등만 한글만으로 제작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대육이나 지금 우리나라의 신문들이 일본의 신문들을 너무나 절대적으로 모방하고 있는데서 해방되는 신문이 하나 등장이라도있어야 하겠다는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어떤 종합잡지는 한글전용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파괴하기 제트리고 한글전용으로 성공했던 예가 있었다. 물론 그 잡지는 한자를 한글로 표기하는 식의 한글전용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를 고르고 다듬어 잡지를 만드는 정성을 보였고, 한글전용에 대한 고집과 확신을 가졌기에 성공할수가 있었을 것이다. 신문이라고 그러지 말라는법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 단행본들은 한글전용이거나 한자를 대폭줄이고 있으며 특히 두드러진 현상으로는 가로쓰기를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신문만은 반드시 내려

> 우리나라 신문이 걸어온 발자취는 좁은 지면에서 벌인 한글과 한자의 자리다툼의 연속이었다. 지금이라도 고집스런 확신을 가지고 「한글신문」을 시도함과 아울러 부단한 연구풍토를 정착시켜야할 것이다.

정 진 석
(홍보학과조교수)

사설

축제를 앞두고

안타까운 기다림 끝에 맞은 개강 이후 어느 새 한 달이 가까와져 오고 있다.

제이나 지루한 하절 (夏節) 이었기에 개강당시의분위기는 상연 (相面) 의 즐거움과 더불어 어색하기가 지 한 미묘함을 감추지 못했다.

어수선했던 개강 초의 분위기는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듯하다. 지난 8일 에년부 바들었어 빈 제13회 「모의 올림픽」으로 절정에는 건강한 의 배생의 효과이 높아가고 있다. 일말아 오는 17일에는 초가을의 상상한 결기를 맞으며 제7회 「의문축제」가 시작된다. 바야흐로 의대생의 티없는 젊음이 발현되는 이듬달에는 어느덧 개강초의 풍랑한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이밤때면 흔히 이야기되는것이지만 「건강한 의대인의 젊음을 발현한다」는 명제를 놓고 우리는에년부터들었는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 대학인의 건강한 젊음은 자신과 사회에 대해 바르고 확고한 의식을 선행시킴으로써 가능하며 그의 발현에 「아카데믹」하고도 지적인 중요의 발랄함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소위 대학인의 제전을 맞는 자세에 있어서 현재 우리의 인식은 어느 곳에 관심의 지향점을 두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다. 자칫 나와 너가 제한 공동의 장 (場) 에서 중요한것이무엇이며 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어느 사이 망각의 심연으로 가고 있지나 않나 돌이켜 봐일이다.

우리의 젊음과 이른바 지성에 걸맞게 의식하고행동해야 함을 새삼 강조하는 것이다.

타율으로는 이러한 학교행사가 있을 때마다 예외없이 강조되고 별반 실효가 없는 문제를 지적코자 한다.

그것은 곧 제 (器) 형사의 학구적인성격을 종분리상 될 것이며 그를 중점적으로 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번 외문축제를 앞두고 우리는 이에 대해 경험에 의한 구체적인 바가체를 제시코저 한다. 그들이 한 사건점검은 축제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심부름꾼 비하는 효국단과, 학교측의 입장을 각각 돌아보는것이 된 수 있겠다.

먼저, 학생들의 참여는 각자 주체의식을 갖춘 것의 집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지방행사에서본 경우를 예표년면, 행사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학생들 측이 주최자의 위치를 선점하고 주최자인 학교효국단 측이 주관자로 되어 주체이 전도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주관학생들이 이를 채 생각치않고 형사실무에만 열중리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명분을 필무로는 내부적 갈등과 마찰이 유발되는 것도 이에 직지않게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그와 함께, 저번기를 지나 계출받은 학도효국단에 대해 언급한다면. 무엇보다 서어렵이나 각 학과동행사 실무측과의 긴밀한 협조에 한전을 기해주도록 바란다.

이 또한 작년의 예이지만 축제형사의 일정중 행사를 맡은 측과 효국단 간부진과의 불준분한 사전협의에 의해 당일 유체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던것을 상기하면 참고가 될 것이다.

아울러 폐정된 예산의 낭비없는 사용을 권하고싶다. 예마다 「모의올림픽」때면 새로 맞추어있는 효국단 간부진의 은동복도 이에해당하지 않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자율한 것이라고 무시할 일이 못됨은 물론이다.

학교측에서도 종분한 경비보조와 참여분위기 조성에 협조해야 할것이다.

끊임없는 국·한문 사용시비

「한글전용」위해 꾸준한 연구와 지원있어야

대학신문의 「한글 전용 가로쓰기」… 주체적 신문정신의 선구

일신보 (每日申報) 가 1928년1월1일부터 루비활자를채용했으나 2년반만인 1930년6월11일부터는 이를 폐지한 일이 있었다.

일선이신문이나 중판물에는 오랜전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는 루비활자가 우리 신문에 정착하지 못한 것은 제작상의 번거로움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점 외에도 꾀이 단순한 일본글에 비해서 한글은 꾀이 복잡하여 작은 루비글자로 쓰면 글자가 잘 보이지않는다는 등의 불합리한 애로때문에 성공하지못한것이다.

최근에는 중앙일보 (中央日報) 가 제목에한해서 부분적으로 조심스럽게, 아주 드물게 한자에 토를 달고 있다.

신문의 한글전용은 이와같이 몇차례에 걸쳐서 시도와 좌절을 되풀이했다.

60년대 이후로는 인문계가 장기적인 대책을 갖지 못한채 정부가 한글전용을 채용 장려이 빌고 나가니 인문계도 이에 따라 한글신문을 주전해 보다가 정부의 정책이 후퇴하면 신문도 한자제한을 위한 노력을 포지부터 포기해버려 도로아미타불이 되곤했다.

1968년 1월에는 신문협회가 설정한 상용한자 (常用漢字) 2천자 범위안에서 신문을 제작하겠다고 작신문이 공동사고 (社告) 를 내었고, 신문협회의 지원으로 편집기자회가 한글신문편집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글신문제작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것도도 정부의 강력한 한글정책에 영향을 받은것이었다. 그후로 한글전용신문을 위한 연구와 제작은 뒤로 물러나고 말았다.

정부가 1965년11월에 한글전용을 한 강력한 법률시안(試案)을 발표했을때에 언론계는 크게 반발했고, 조선일보의경우에는 「해도 정지중과나」라는 논설을 통해 한글전용에 회직적으로 반대하는 뜻을 명백히 밝힌것이 언론계의입장이라 볼수 있을것이다.

4. 가로쓰기와 편집연구

한글과 한자간에 지면을뺏거나 할것이 아니라, 가령 일간계 중앙지가운데 한두개등만 한글만으로 제작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대육이나 지금 우리나라의 신문들이 일본의 신문들을 너무나 절대적으로 모방하고 있는데서 해방되는 신문이 하나 등장이라도있어야 하겠다는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어떤 종합잡지는 한글전용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파괴하기 제트리고 한글전용으로 성공했던 예가 있었다. 물론 그 잡지는 한자를 한글로 표기하는 식의 한글전용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를 고르고 다듬어 잡지를 만드는 정성을 보였고, 한글전용에 대한 고집과 확신을 가졌기에 성공할수가 있었을 것이다. 신문이라고 그러지 말라는법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 단행본들은 한글전용이거나 한자를 대폭줄이고 있으며 특히 두드러진 현상으로는 가로쓰기를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신문만은 반드시 내려

5. 대학신문의 사명

한글전용을 위해서는 국수주의적인 한글예찬론이 아니라 한글신문이 갖는 참은 실질 최대한으로 살려서 신문의 상품성을 드높일수 있어야 한다

한글신문은 위해서는 우선 제목, 활자, 편집체재의 세분야에 대한 연구가 앞서야 할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신문활자나 제작설기의 방식은 모두가 외미의 합격성이 강한 점주 중심으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는 아이러니합게도 몇개 대중잡지와, 대부분의 여성잡지들이 한글전용을 먼저 실시하면서 한글 레이아우트의 조형미를 여러가지로 개발해 왔다. 또한 광고의 디자인에 있어서 한글전용의 글자체와 카피의 표현이 크게 발전되었다. 특히 사진식자의 보급으로 한글도 아름다운 여러가지 변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신문의 한글전용을위한 실험 장소 이라는 이러분야에서 집적될수 있다고 믿는다.

두번째 문제로는 한글전용과 함께 가로쓰기의 편집이다.

전문서적을 비롯한 단행본들이 가로쓰기로 나가는 마당에 신문만이 홀자지 않는 것이 아쉽다.

한글신문은 위해서는 우선 제목, 활자, 편집체재의 세분야에 대한 연구가 앞서야 할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신문활자나 제작설기의 방식은 모두가 외미의 합격성이 강한 점주 중심으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는 아이러니합게도 몇개 대중잡지와, 대부분의 여성잡지들이 한글전용을 먼저 실시하면서 한글 레이아우트의 조형미를 여러가지로 개발해 왔다. 또한 광고의 디자인에 있어서 한글전용의 글자체와 카피의 표현이 크게 발전되었다. 특히 사진식자의 보급으로 한글도 아름다운 여러가지 변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신문의 한글전용을위한 실험 장소 이라는 이러분야에서 집적될수 있다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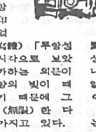
두번째 문제로는 한글전용과 함께 가로쓰기의 편집이다.

전문서적을 비롯한 단행본들이 가로쓰기로 나가는 마당에 신문만이 홀자지 않는 것이 아쉽다.

한글신문은 위해서는 우선 제목, 활자, 편집체재의 세분야에 대한 연구가 앞서야 할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신문활자나 제작설기의 방식은 모두가 외미의 합격성이 강한 점주 중심으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는 아이러니합게도 몇개 대중잡지와, 대부분의 여성잡지들이 한글전용을 먼저 실시하면서 한글 레이아우트의 조형미를 여러가지로 개발해 왔다. 또한 광고의 디자인에 있어서 한글전용의 글자체와 카피의 표현이 크게 발전되었다. 특히 사진식자의 보급으로 한글도 아름다운 여러가지 변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관점과 본질



▲미술사 (美術史) 에 있어서 「인상파」를 솔직함게 기일하고 있다면 우선 큰갑 수 있는 화가 (畵家) 는 「모네」이다. 그의 풍경(風景) 노화로」가 그를 부고 「모네, 그는 눈 (眼) 뿐이다.

그러나 생상한 눈이지 만 그 한말도 인상파를 인상 파 (印象派) 라고 부르는 것이기도 하다. 이 생상한 눈을 가진 화가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하루의 태양빛의 효과를 화폭에 담아놓으려는 새로운 시도를 꾀했다. 그의 시도는 연작 (連作) 「포플러」 「루앙성당」 「인덕국회의사당」 등의 작품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인법가 놓 기회가 있었던「아침의 루앙성당」 「정오의 루앙성당」 「오후의 루앙성당」에서 받은 인상 (印象) 을 중점해인 것이었나. 도대체 피사체 (被寫體) 「루앙성당」은 어떤데, 어떠한 시각으로 보았을 때가 진짜의 모습일까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마지고 보면 태양의 빛이 때에 따라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비례한 빈감의 부한 (無限) 한 다른 모습을 「루앙성당」은가지고 있다. 따라서 완벽한 모습의 「루앙성당」은 존재 (存在) 할 수도 없으며 실형 존재한다고 해도 결고 표현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다. 「모네」, 그는 이러한 시도를 위해 죽의 날가리 하나만 가지고 부리 100여권의 다른 모습의 연작을 남기고 있다.

▲「모네」를 「보는눈」이라 한다면 「생각하는 눈」을 「세잔느」의 반쪽(反)이라 할 수 있다. 예리해 「루앙성당」의 부식인지는 모르지만 본질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시점이 「세잔느」의 미술관이었던 것이다. 그때서 「사과」 하나를 그리는데 있어서도 다른 화가가 주로 「먹고싶은 사과」 라 이상적인 사과만 곤림이 붙게 그렸다고 한다면 「세잔느」는 「생각할 수 있는 사과」를 그 린다. 물인하면 변할수 없는 사과의 본질이었던 것이다. 이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세잔느」의 인간적인 고뇌를 우리는 그의 작품 세계 혹은 그의 편지에서 보는 바 그대로이다.

▲확실히 보는 관점 (觀點) 에 따라 혹은 솔직히 개인적인 인상 (印象) 에 따라 사물의 모습이나, 나아가서 사회의 제현상까지도 달리보일 수도 있다. 아린인수격인 관점이 아닐 때 「객관 (客觀) 」이 하거나와 「세잔느」의 본질추구인 면에 있어서는 또한 주관(主觀)이다. 해서, 절제한 제관은 오히려 주관에 놓을 수 있다는 잔인 (殘忍) 한 생각에 한다. 모든것은 인관다. 다시, 면에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진심, 진심은 결고 변하지 않는다.

<만>

영진약품 자매사
(株)소피아

나의 마음은
활짝개인 가을하늘

活動은 자랑입니다。
28일을 의식하지 않는
活動은 自由롭습니다。
순수天然 컬프로 만든 「푸리」는
속감이 부드럽고 훌수가 더 빠릅니다。
自由로운 生活속에
活動하는 당신의 파트너—
「소피아·푸리」

소피아
푸리

푸리 10켤레 350원
도선 요대용·세탁요망
1개 25개

종합대학으로서의 입시체제 ②

외국 카운트·다운 대학교

<차 례>

1. 프롤로그
2. 종합대학으로서의 입시체제
3. 전기·종합대학화에 따른 여론분석
4. 종합대학—규모팽창에 따른 문제
5. 졸업정원제와 입학정원의 증가
6. 에필로그

지난 7월 30일 발표된 교육제도의 대변혁은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 새로운 전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입시제도의 개혁, 졸업정원제의 실시, 모집정원의 대폭증가들은 그동안 불문율처럼 내재 (內在) 해 왔던 대학교의 모순점을 일시에 척결하는 동시에 그 반면에 또 다른 부작용들을 야기시키고 있어 새로운 교육제도에 민적적응하고 부작용에 대처할 방안을 강구하는 대학만이 살아남는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대학의 경우 81학년도 부터 양적, 질적인 규모팽창이 수반되는 종합대학으로 승격됨으로써 현재의 주먹구구식인 전근대적인 운영방식에서 탈피하는 일이 급선무라하겠다.

본대학 경영진은 현재와 같은 고식적인 자세가 어차피 유수 사립대와의 경쟁에 장애요소가 됨을 인정하는 등식에 본대학의 장기적 발전이란 대명제를 놓고 과감한 발상수정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이의 방법책임 검찬요원 교수가 참여하는 「재무위원회」를 설치, 업무를 분담하고 학장 권한을 강화시킴은 물론 재단운영의 예·결산등을 공개, 「깨끗한대학」으로서의 이미지를 심는 작업에 눈을 돌려야할 때로 보인다. 위에서 열거한 본대학의 내·외적인 제도개선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다른 문제점들을 커버할수 있는 것이다. 현 교육제도에있어 대학운영자로서는 「질(質)의 문제」보다는 「양(量)의 팽창」에 우선은 만족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이러한 사고방식이 내포한 위험성은 명약관화하다. 어떤방식으로든지 「종합대학화」는 일단은 받아들여진 문제이다.

이 제3지망제는 79학년도 입학생에 한해서임. 실시됨에 있는데 신입생의 질적 향상에는 성공적 이었으나 심각한 학생유출현상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폐지된 제도였다.

그러나 현 교육제도 하에서는 심정적으로 30%의 유급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 편입한 학사자린를 실시할 경우 제 2지망제로 인한 학생유출현상은 「학사(學事) 탈락」의 부분적함으로 수렴되어 집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 교육제도하에서 최대한의 우수학생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제도로 비쳐지고 있으나 학교당국의 재 검토가 있어야할 것이다.

이외에도 우수한 지방학생의 유치를 위한 기숙사의 설치는 시설확충 이란 면에서도 시급한문제이다.

현재 학교당국은 장의실의 신축을 선행 사업으로 삼고있으나 장의실만을 놓이는 안일한 자세에서 탈피한 특자한 투자를 단행 기숙사설치에 적극적인 시설을 건지해야할 것이다.

또 시청각교육원 및 어학실습실을 2~3배 확장하여 어학교육의 산실로써의 미지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상 제시된 여러 문제점의 골자는 「종합대학화」에 따라 쉽게 예견할 수 있는 「학생질 (質) 의저하」와 그로 인한으로서 제도개선을 위한 「과감한투자」로 압축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학운영자로서는 「질의 문제」보다는 「양 (量) 의팽창」에 우선은 만족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이러한 사고방식이 내포한위험성은 명약관화하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종합대학화」는 일단은 받아들여진 문제이다. 아직도 미비한 선명 조건의 이행은 차치하고라도 「법의 홍보의 문제」라고 「파악」하는 소스로의 어른조정 조차도 이루어 지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과감한 투자와 법대학인의 관심을 끌기하면서 이행점을 철저한 인식인의 「학교운영」이 임해야 제도적인 개선으로서 「제 2지망제」의 부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어클」 발전적 새방향 모색 필요

학술「서어클」거의없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관계 규정 강화 학교당국의 성의있는 태도 필요

대학에서 「서어클」활동은 소위 extra curricular activity 로 대학인의 조화로운 인격을 함양하는데 필수적인 이라 하겠다. 이는 두말할 여지없이 대학당국과 「서어클」구성요인들의 원활한 협력과 상호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문화의 기반을 다지는데 「서어클」활동이 일조 (一助) 를 한다고 하면 가장 민주적인 대화의 참구가 바로 여기서 이루어야만 한다는데 이른 (眞論) 이 있을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20일 동륙마감된 「서어클」이 25개뿐이었다는 사실은 「서어클」구성인들에게 씁직않은 실망이 아닐수 없다.

이는 「신고제」였던 지난학기 81개의 3분의 1정도에 달했던 79년 기준으로도 6개가 모자란 수자였다. 그러나, 문제는 동록인가를 받은 「서어클」의 숫자가 단지 꺽었다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동록신청과 동록인가를 받는 절차상의 혹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방적인 폭행이 꽁행됐다는 사실이다.

이번 「서어클」동록을 심사한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구정을 살펴보면, 「30명이상의 회원과 1명이상의 지도교수 확보」등 응대의 립적요에, 구체적으로 「지역성을 띤 단체는 동록을 불가」하고 「유사서어클은 통폐합」하도록 되어있다. 덧붙여 이번엔 79년 기준으로 신규 「서어클」의 동록은 일단 전원 유보했다 한다. 이는 캠퍼스 문화상태에 따라 장의실 부족현상을 갖춘 학생회관 2층이 다시중점의 장의실로 되어버린 배문이다.

다음으로는 무엇보다 중전의 서어클 「신고제」에서 「동록제」로 서어클 관계 규정이 강화된 것이 서어클 활동에 큰 제약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된다. 전술(前述)한 대로 서어클의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대학 당국과 서어클인들의 상호신뢰라고 한다면, 일부 강화된 조항에 입배에 서어클의 최소한 기능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도록 학교당국의 성의있는 배도가 선행돼야할 것이다.

항을 지적되고 있듯이, 교내 서어클활동의 고집적인 취약점이나 학회활동의 미약함은 이번 경우에도 다름없이 현재 동록된 학술계통 서어클이 「타입반」「A L A 반」「협학연구반」등의 3개인 것은 79년의 5개, 80년 1학기의 26개에 비교하여 최저선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대학문화의 특성를 중에서도 제일의적 (第一義的) 인 위치를 차지하는것이 아카데미즘 일진대 장의실에서 학문을 응용, 발전시키고자하는 학회의 활동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에 동록 허가된 서어클의 대부분이 오락과 체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는 직접은 문제점이 있다고 대학인은 입을 모으고 있다.

서어클이 본래의 사명인 미작문화를 주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서어클 「구성원」과, 전 대학인과 대학당국의 협조가 포개져야 만가능할 수 있는것이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동록이 허가된 「서어클」도 이번 학기에 한해서 「잠정적」인 것이라 전한다. 기왕에 동록된 서어클은 자체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뿐더러 81년에 동록이 허가된 「서어클」도 이번 학기에 한해서 「잠정적」인 것이라 전한다. 기왕에 동록된 서어클은 자체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뿐더러 81

◇서어클이 본래의 사명인 대학문화를 주창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서는 서어클구성원과, 전대학인과, 대학당국의 협조가 포개져야만 가능할수 있다.

지금은 할때가 아닌데

김 수 희

<러시아어과 강사>

결심의 계절이라한다. 반드시 농촌뿐이 아니라, 도시에서도 각사회단체일로 수확을 위한 행사가 한창이다 미학가도 예외일수 없는듯 운동시합을 알리는 현수막이 즐비하며 운동장엔 평소에 볼수없던 열기로 가득하다.

체력 단련은 건전한 정신력의 원동력일뿐 아니라 도한 운동이 내포하고있는 함덕이 중년의 미백지향적이므로 이를 맞아는 이는 아무도 없을것이다. 문제는 대학사회가 지닌 특성에 발전시 어떠한 기여를 하는가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이다. 과감한 투자와 법대학인의 관심을 끌기하면서 이행점을 철저한 인식인의 「학교운영」이 임해야 제도적인 개선으로서 「제 2지망제」의 부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재부>

대학원 교육, 내실화가 절실하다

고등교육에의 열이 높아가고 있다. 더구나 요즈음 처럼 경제불황을 발원지로 하여 취직난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대학졸업 예정자들에게 적지않은 심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1946년 서울대학교대학원을 효시로하여 약 3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학원제도는 그동안 학부 전공에 대한 재조명과 세분화되고 심층적인 연구, 대학교육의 일익을 담당할 인재의 양성이란 측면에서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상아탑의 구실을 해왔다.

또한 현금에 이르는 등안도 한국의 대학원은 질적,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해 왔으며, 그 본질적인 구실이 바뀐 것은 아니나 짜금의 년년 이래로 여러가지 상황의 변화에 의한 사회현상과 경제순환의 작선은 「대학」이란 기존의 상아탑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그 파급효과는 대학원의 선택동기와 그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재고 (再考) 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특히 학생들의 대학원선택동기는 중래에의 거의 단일적인 이유에서 상당히 다양하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학생들의 대학원 선택동기와 대학원과정 진중현상, 그에 따른 대학원 과정내의 제도상의 문제점등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애많초 대학원 진하은 대학에서의 학부교육의 연장으로 이해되어졌으며 진학하려는 당사자 역시 연구직이나 고등교육 담당이란 명제를 향시 업무에 투고 있었다. 그러나 본보의 조사에 의하면 1978년 말기 (未期) 를 경점으로 이러한 대학원 기능에 대한 이해는 일말의 변화가 일고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최근 대학원 진학생들의 선택동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다.

대학원 본연의 기능인 학술 수업의 연장, 즉 학문의 한맛시 경론화, 우월의 동기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와 함께 업계한 학사관리를 실시 「공부하는 학생인이 살아남는」 풍토조성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것이다.

교육의 내실화가 내적인 정비의 강화라면 「학교운영의 쇄신」은 그 외적인 정비가 필 수 있을 것이다.

현 본대학의 운영은 「본대학 인사위원회」가 거의 소진됨, 일 없이 인사이중이 이루어져 왔다는 단적인 예 (例) 밖으로도 그동안의 학교운영이 임해져이며 불규칙하게 이루어져왔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제 본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승격됨으로써 현재의 주먹구구식인 전근대적인 운영방식에서 탈피하는 일이 급선무라하겠다.

본대학 경영진은 현재와 같은 고식적인 자세가 어차피 유수 사립대와의 경쟁에 장애요소가 됨을 인정하는 등식에 본대학의 장기적 발전이란 대명제를 놓고 과감한 발상수정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이의 방법책임 검찬요원 교수가 참여하는 「재무위원회」를 설치, 업무를 분담하고 학장 권한을 강화시킴은 물론 재단운영의 예·결산등을 공개, 「깨끗한대학」으로서의 이미지를 심는 작업에 눈을 돌려야할 때로 보인다. 위에서 열거한 본대학의 내·외적인 제도개선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다른 문제점들을 커버할수 있는 것이다. 현 교육제도에있어 대학운영자로서는 「질(質)의 문제」보다는 「양(量)의 팽창」에 우선은 만족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이러한 사고방식이 내포한 위험성은 명약관화하다. 어떤방식으로든지 「종합대학화」는 일단은 받아들여진 문제이다.

이 제3지망제는 79학년도 입학생에 한해서임. 실시됨에 있는데 신입생의 질적 향상에는 성공적 이었으나 심각한 학생유출현상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폐지된 제도였다.

그러나 현 교육제도 하에서는 심정적으로 30%의 유급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편 입한 학사자린를 실시할 경우 제 2지망제로 인한 학생유출현상은 「학사(學事) 탈락」의 부분적함으로 수렴되어 집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 교육제도하에서 최대한의 우수학생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제도로 비쳐지고 있으나 학교당국의 재 검토가 있어야할 것이다.

이외에도 우수한 지방학생의 유치를 위한 기숙사의 설치는 시설확충 이란 면에서도 시급한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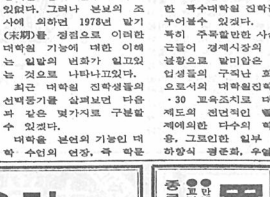
현재 학교당국은 장의실의 신축을 선행 사업으로 삼고있으나 장의실만을 놓이는 안일한 자세에서 탈피한 특자한 투자를 단행 기숙사설치에 적극적인 시설을 건지해야할 것이다.

또 시청각교육원 및 어학실습실을 2~3배 확장하여 어학교육의 산실로써의 미지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상 제시된 여러 문제점의 골자는 「종합대학화」에 따라 쉽게 예견할 수 있는 「학생질 (質) 의저하」와 그로 인한으로서 제도개선을 위한 「과감한투자」로 압축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학운영자로서는 「질의 문제」보다는 「양 (量) 의팽창」에 우선은 만족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이러한 사고방식이 내포한위험성은 명약관화하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종합대학화」는 일단은 받아들여진 문제이다. 아직도 미비한 선명 조건의 이행은 차치하고라도 「법의 홍보의 문제」라고 「파악」하는 소스로의 어른조정 조차도 이루어 지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과감한 투자와 법대학인의 관심을 끌기하면서 이행점을 철저한 인식인의 「학교운영」이 임해야 제도적인 개선으로서 「제 2지망제」의 부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재부>



유학 의존적「두뇌」양성체계 벗어나야

명제를 향시 업무에 투고 있었다. 그러나 본보의 조사에 의하면 1978년 말기 (未期) 를 경점으로 이러한 대학원 기능에 대한 이해는 일말의 변화가 일고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특히 학생들의 대학원선택동기는 중래에의 거의 단일적인 이유에서 상당히 다양하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원 본연의 기능인 대학 수업의 연장, 즉 학문의 한맛시 경론화, 우월의 동기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와 함께 업계한 학사관리를 실시 「공부하는 학생인이 살아남는」 풍토조성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것이다.

교육의 내실화가 내적인 정비의 강화라면 「학교운영의 쇄신」은 그 외적인 정비가 필 수 있을 것이다.

현 본대학의 운영은 「본대학 인사위원회」가 거의 소진됨, 일 없이 인사이중이 이루어져 왔다는 단적인 예 (例) 밖으로도 그동안의 학교운영이 임해져이며 불규칙하게 이루어져왔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제 본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승격됨으로써 현재의 주먹구구식인 전근대적인 운영방식에서 탈피하는 일이 급선무라하겠다.

본대학 경영진은 현재와 같은 고식적인 자세가 어차피 유수 사립대와의 경쟁에 장애요소가 됨을 인정하는 등식에 본대학의 장기적 발전이란 대명제를 놓고 과감한 발상수정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이의 방법책임 검찬요원 교수가 참여하는 「재무위원회」를 설치, 업무를 분담하고 학장 권한을 강화시킴은 물론 재단운영의 예·결산등을 공개, 「깨끗한대학」으로서의 이미지를 심는 작업에 눈을 돌려야할 때로 보인다. 위에서 열거한 본대학의 내·외적인 제도개선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다른 문제점들을 커버할수 있는 것이다. 현 교육제도에있어 대학운영자로서는 「질(質)의 문제」보다는 「양(量)의 팽창」에 우선은 만족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이러한 사고방식이 내포한 위험성은 명약관화하다. 어떤방식으로든지 「종합대학화」는 일단은 받아들여진 문제이다.

이 제3지망제는 79학년도 입학생에 한해서임. 실시됨에 있는데 신입생의 질적 향상에는 성공적 이었으나 심각한 학생유출현상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폐지된 제도였다.

그러나 현 교육제도 하에서는 심정적으로 30%의 유급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편 입한 학사자린를 실시할 경우 제 2지망제로 인한 학생유출현상은 「학사(學事) 탈락」의 부분적함으로 수렴되어 집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 교육제도하에서 최대한의 우수학생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제도로 비쳐지고 있으나 학교당국의 재 검토가 있어야할 것이다.

이외에도 우수한 지방학생의 유치를 위한 기숙사의 설치는 시설확충 이란 면에서도 시급한문제이다.

현재 학교당국은 장의실의 신축을 선행 사업으로 삼고있으나 장의실만을 놓이는 안일한 자세에서 탈피한 특자한 투자를 단행 기숙사설치에 적극적인 시설을 건지해야할 것이다.

또 시청각교육원 및 어학실습실을 2~3배 확장하여 어학교육의 산실로써의 미지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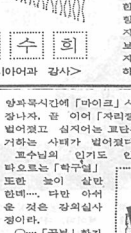
이상 제시된 여러 문제점의 골자는 「종합대학화」에 따라 쉽게 예견할 수 있는 「학생질 (質) 의저하」와 그로 인한으로서 제도개선을 위한 「과감한투자」로 압축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학운영자로서는 「질의 문제」보다는 「양 (量) 의팽창」에 우선은 만족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이러한 사고방식이 내포한위험성은 명약관화하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종합대학화」는 일단은 받아들여진 문제이다. 아직도 미비한 선명 조건의 이행은 차치하고라도 「법의 홍보의 문제」라고 「파악」하는 소스로의 어른조정 조차도 이루어 지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과감한 투자와 법대학인의 관심을 끌기하면서 이행점을 철저한 인식인의 「학교운영」이 임해야 제도적인 개선으로서 「제 2지망제」의 부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재부>

대학, 예리한 현실의식 필요

대학축제 대부분 구·미(歐·美)의 모방물



독자의 소리

개성적을 갖는 자세가 아쉽다.

우리의 농촌은 특히 봄가을 농번기에 일손이 달리일는데 일요일하고있다. 농촌은 외국에 앞서 중년한 밀즙교육의 배려이 필수임으며 심신의 단련장으로서 보람있는 자세가 아쉽다.

우리의 농촌은 특히 봄가을 농번기에 일손이 달리일는데 일요일하고있다. 농촌은 외국에 앞서 중년한 밀즙교육의 배려이 필수임으며 심신의 단련장으로서 보람있는 자세가 아쉽다.

「사랑」을 아끼는 마음

○···「모의올림픽」에선전이 한참인 지난 10일, 모파끼리의 결다리기 시합이 벌어졌는데, 자못 일촉즉발 (一觸即發) 의 험악한 사태로까지 발전하여 폭력사태 일보직전에 수습되었다고.

문제는 경기가 진행중에도 승부가 나지 않아 박살막살한 터인데 이에 긴장한 심판이 오판 (誤判) 한 탓.

물으로 때우는 일이 타 그런 것이오만 「사랑」을 아끼는 마음이 선열하여야 하지 않겠소.

○···「모의 올림픽」이라, 즉제다, 학내가 온통 행사 「붐」에 싸여있는 가운데, 모교수님의 장의실에서 벌어진 「해프닝」한토막.

유독 수강생이 많은 어떤 교양과목시간에 「마이크」시설이 고장나자, 곧 이어 「자리뜀뛰기」이 벌어졌고 심저어는 교단까지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것.

교수님의 인기도 바로으는 「학구열」 또한 높이 살만한데···. 다만 아쉬운 것은 장의실사정이라.

○···「공부」하기에 좋은 계절이라 면학고자의 소리는 캠퍼스 곳곳에 드높아 가지만 한편으로 모의 올림픽 개막을 앞둬는 소리도 상승세 (上昇勢) 에 있어.

바야흐로 면학 최적 (最適) 분위기는 운동 최적분위기와 보조 (?) 를 맞추는 듯.

학교당국은 「장의 계속의 원칙」을 밝히고 있으나 운동장 곳곳에서 벌겨는 함성소리에 장의 편할 날 있을국···.

○···「아거스」의 학술지 전환에 관해서는 이미 본보를 통해 언급된 바가 있어 주지의 사실인바.

곧 이어 「디 아거스」 사 (社) 는 이에 따른 외면인의 공감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개회를 개최했다는 소식도 상소식 (上昇勢) 에 있어.

20여년간 외대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부각시켜온 「아거스」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마당에서 크로니클 자 (子) 독자제위의 적극적 관심을 다시한번 촉구하는데.

○···학점 인플레 시대의 후유증 맞이였던지 금학기의 장학금 수혜자 명단을 놓고서는 찬공론이 분분한 터이나 유사 아래의 등록금 전액 지급및 생활보조비 지급의 지소득층 저녁 복법장금의 전액 일반의 상상을 넘는 율단 (?) 이 개입되었다는 후문.

애기인즉은 여타 대학과는 달리 본대학의 경우는 전국으로 재탄 (再彈) 자체의 금고에서 얼출되었다는것. 머리 조아리는 바이오니 아무쪼록 세세 (謝謝)

이글 크로니클

학점 인플레시대

미국유학안내

Admission 취득대행 (I-20Form DSP-66)

미국영문대학(원) 입학및 편입생을 위한
(1) Recommendation 작성지도
(2) Autobiographical Essay 작성지도
(3) TOEFL, GRE, GMAT, SAT LSAT 및 MCAT의 신청접수대행
(4) study plan작성 및 지도교수선정

무료상담및무료자료제공

(1) G.P.A와 TOEFL및 필수시험과목에의한 학교선정
(2) Scholarship, fellowship, assidantship에 관한 상세한 정보안내
(3) offcampus(통신강의)로 미국대학교(원)학점을 국내에서 취득할수 있도록 대행

주식회사 종합대행
Oversas Educational Corporation
주소: 서울특별시 북아현 2동 240—2
문의전화: ☎362)8045, ☎362)1798

軍 행정병 모집
종로1가 서울운전학원 ☎72-9716 ☎72-2723
●보충단·25세·복부시기조후형정상으로인해·공무원·유인기능수산업체·정치방송기술계열 ●본인 유단자우대 ●공인기능사 운전면허 ●운전보유자 ●기술계열 ●학사경력자 ●고등학교졸업자 ●대학졸업자 ●대학수험생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단 인간실존의 현재 공간에서의

장 석 주

<시인·문학평론가>.

송영의 문학이 전반적으로도 현재 보여 주고 있는 특징은 폐쇄된 상황 속에 갇혀 있는 인간들의 삶과 의식에대한 진지한 성찰에 있다고 말수 있다. 송영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작중인물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답답함과 소외의식인데, 그것들은 그들이 소속된사회나 집단 속에서 그들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못하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그의 대표작으로 알려져있는 중편소설 「선생과 황제자」는그 러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파헤쳐 보여준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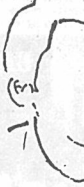
이 작품은 제목이 암시하듯이 자신이 환자가 아닐까하는 강박관념의 정신병리학적인 상처를지닌 내장학인 인물인<선생>순열씨와 중풍병인 병동상식에 의한 삶의 방법을 지속해온 외향적인 인물인<황제자>정하사의 미묘한 심리적대립과 갈등을 중심으로 한 정동에 대한 밀도있는 묘사를통한 인간 이해를 이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압력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투기(投企)로서의 근원적인 선택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실존주의적 (實存主義的) 테마를 깊이있게 추적하여 보여준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은 감방이라는 만민 공간 속에 수감된 사람들의 억압된 삶의 내면(內面)과 심리적 반응을 정치(情緻)하게 표현함으로써 인간실존(人間實存)의 근원적 상황을 날카롭게 표출하고 있는데, 이점은 작가답보에 나타나듯이 모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작가 자신의 체험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의 말미에서 주인공 순열씨가 한밤중의 어두운 감방안에서 혼자 깨어나 느닷없는 울음을 터트리는데, 그울음의 이면에는 이 세계 안에서의 상호 의사교환의 불가능성, 혹은 인간실존의 현장으로서의 이세계의 부조리함에 대한 절박한 자각의 고통이 숨겨져 있다.

이 작품은만 아니라 「밤계서 오시는날」, 「당신에게 축복을」 등에서도 감방이라는 닫혀진 세계공간이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고, 「마테오에 겁」과 「시골 우체부」에서는 감방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벽지가, 「중앙신기사」에서는 밀리밀 통조차 없는 철저 외이 소외의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미화작업」과 「참혈한거울 이야기」에서는 한재의 관자김, 혹은 작은 방이라는 폐쇄된 공간이, 「부탁일기」에서는 어둠고 답답한 다락방이라는 한 집지하고 깊이있는 성찰이 송영의 작품세계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를 이루고있는 그의 연에중요한에 지대적인 정신적 외상(外傷)을 남겨놓은 원체험의 존질인 부사작품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정련세계 신화형상의 소설변명」이라는 글에서 송영의 작품의 배경공간으로 빈번하게 밀폐된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과 그것이 이 작가의 원체험으로써, 심리비평가 사틀로 모옹(Ch. Mauron)의 용어를 빌어 <고정관념의 신화형상> 혹은 <무의식적인 이미지의 결합방>과 관련되어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아울러 이 체험의 원형은 그의 어린작품속에 그다지 크게 손상되지 않고 뛰어난 소설적 변명의 과정을 거쳐 드러나고, 있는바, 작상이라는 폭수한 집단현실 속에서 영위되는 삶의 문제에 대한 진지하고 깊이있는 성찰이 송영의 작품세계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를 이루고있는 그의 연에중요한에 지대적인 정신적 외상(外傷)을 남겨놓은 원체험의 존질인 부사작품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미네르바의 후예들 ③

송영 편

1963 본대학 독어과 졸업
1967 <창비>발표·문단 데뷔
1970 중편 <선생과 황제자> 발표로 작가 위치 굳힘
1975~현재 단편과 중편·장편등 많은 글을 씀

원체험과 깊은 관련을가진 고정관념의 신화형상의 소설변명임을, 작가 자신의 <3년간 감시(감옥)에서살면서 나는 단만민 감시울타리 바깥을 단 한 일이 없었다.>

전만에서 내가 주로 한 일은 일에 병력일 정도로 집착하는 에피소드도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인간은 면저저 있고면서 등시에 앞으로 내면지는 피투적 투기(投投的投企)에 의하여 그 실존을 유지하는 존재라는사실은 이미 하이데거(M. Heidegger)에 의하여 지적되 바있다.

송영의 작품에 등장하는 작중인물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미력 가능성을 향하여 <자신의 <내면지는>일에는 투려을을갖고 있다. 그러 등시에 미력적 가능성을 향하여 자신을 내명지는>일에 대한 집념한 욕구 혹은 등경도 있다. 그러나 평등으로 구체화시키지는못한다.

이처럼 송영의 작품 속에나타나는 여러 작중인물들이 밀폐된 공간 속에서 단절감과소외의식에 깊이 침윤되어 있고 폭독한 절망과 좌절의식 속에 허덕이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가? 그것은 개인적주구와 전체로서의 사회가 지향하는 이념적 요구에 의한 사회적 갈등에 사이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초극하지 못하기때문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유폐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벗어남이라는 구원의 의미를 가진 소식이나 누군가에 대한 간절한 갈구함 속에 내면지식도(그것 만만 감시울타리) 등식에 의하여 사물과 사람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투게」) 오히려 밀폐된 상황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안식을 취한기도 (「선생과 황제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과 같은 이유에서 평론가 김주연은 그의 세계를<상속의 이상주의>라고 했고, 김병익은 그의 소설을<실존주의적 소설>이라고 명명하여 있다. 우리는 아무도 그의 비극적 세계인식이 어떤 방향과 지평으로 확대되고 심화되어 나갔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이제 우리는 그의 작품의 탐구가 삶과 세계의 근원적인 상황에 대한 더욱 깊이있는 성찰에 의하여 첫 발림되게 될 변화, 예의 주시할 의무를 갖는다.

<다음은 시인 이유경 편>

탈춤 그 본질의 재생을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학가의 가장 큰 변화소용중의 하나였던 것이 「전통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도였다는 것은 주목의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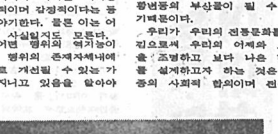
71년 서울대가 최초로 「가면극연구회」를 창립함으로써 전대학가로 불붙기 시작한 「전통문화」의 계승작업은 대학사회로 놀라운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고 일제시대이후 현시된 우리 문화를 재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이러한 전통문화의 이해와 일련의 계승작업은 그동안 외래문화에만 젖어있던 대학사회의 「이미지」를 새신게했으며 나아가 대학인의 의식을 깨우치는 주된인 계기도 되었다.

특히 이중 발굴을 이조 중엽에 발생, 억눌린 민중의 애환과 절규를 해학과 풍자로 표현, 우리민족의 기질를 마음껏 펴보인 춤동한 전통문화 중의 하나이다.

이 발굴을 재활시켜야 하겠다는 의지가 사회전반에 퍼져감에 따라 한편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까지 받았던 대학내 「가면극 연구회」가 이제 하나 둘 사라져가고 있어 씁쓸하다.

이번 사업들은 대학의 발굴이 보편의 우리성과 사회성의 조화라는 거리가 먼 지나친 사회성표출에의해 야기된 역기능을 선동적이며 감정적이다는 등으로 이야기한다. 물론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역기능이란 항상 행위의 존재자체내에서 스스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송파산대놀이 양주 산대놀이와 흡사한 형식과 내용을 가진 가면극.

전통문화의 계승은 사회적 합의

상황변동, 고유문화 부정이유 될수 없어

합을 금할 수 없다.

본대학의 「가면극 연구회」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가면극연구회는 창설이래 비교적 서구이전집회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던 본대학의 문화풍토에 전통문화를 재인식시키고 서구문화를 우리의 것에 여과시켜주는 촉매의 기능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의 발굴을 단지 전위적이고 행동적인 반항의식을 극화 (劇化) 하는것으로 단정지어, 이를 기본적인 변질로 치부하는 것은 발굴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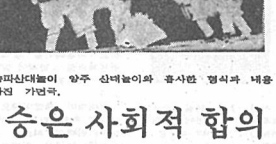
단지 역기능만을 이유로 발굴이 가지는 고유의정신과 작업을 일시에 부정할 수는 없으며 더우기 그 존재를 말살하는 것은 「대학문화의 창달」이라는 작은 측면에서만도 제고해보아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정의 요소는 부정의 요소가 있음으로써 더욱 확실해 질수 있으며 그 역 (逆) 도한성립한다.

그러나 공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역기능이란 것이 부정적이었다고 말 만한 근거가 단지 해나하면 한때는 국가적차원의 지원을 받다가 상황이 달라짐으로써 존·폐를 거론할만큼 「고유문화창달」의 작업은상품번등의 부상물이 될 수 없기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전통문화를 아낌으로써 우리의 어제와 오늘을 조명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자 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이며 전통문화의 지원을 받다가 상황이 달라짐으로써 존·폐를 거론할만큼 「고유문화창달」의 작업은상품번등의 부상물이 될 수 없기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전통문화를 아낌으로써 우리의 어제와 오늘을 조명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자 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이며 전통문



인간 실존의 근원적 상황을 날카롭게 다룬 작가

밀폐된 공간속에서의 단절과 소외의 메타포

창속의 이상주의와 실존주의적 소설

는 밀폐된 상황이 나타난다.

이것은, 인간의 삶의 현장으로써의 이 세계가 한계상황이며 결국 이 한계상황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넘어설수 없는것이라는 작가의 비극적 세계인식 (世界的世界認識) 을 반영한 것이다.

이미 밝혔는 (원체험) 또는 고 통한 어린 체험과 깊은 관련을가진 고정관념의 신화형상의 소설변명임을, 작가 자신의 <3년간 감시(감옥)에서살면서 나는 단만민 감시울타리 바깥을 단 한 일이 없었다.>

전만에서 내가 주로 한 일은 일에 병력일 정도로 집착하는 에피소드도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인간은 면저저 있고면서 등시에 앞으로 내면지는 피투적 투기(投投的投企)에 의하여 그 실존을 유지하는 존재라는사실은 이미 하이데거(M. Heidegger)에 의하여 지적되 바있다.

송영의 작품에 등장하는 작중인물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미력 가능성을 향하여 <자신의 <내면지는>일에는 투려을을갖고 있다. 그러 등시에 미력적 가능성을 향하여 자신을 내명지는>일에 대한 집념한 욕구 혹은 등경도 있다. 그러나 평등으로 구체화시키지는못한다.

이처럼 송영의 작품 속에나타나는 여러 작중인물들이 밀폐된 공간 속에서 단절감과소외의식에 깊이 침윤되어 있고 폭독한 절망과 좌절의식 속에 허덕이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가? 그것은 개인적주구와 전체로서의 사회가 지향하는 이념적 요구에 의한 사회적 갈등에 사이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초극하지 못하기때문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유폐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벗어남이라는 구원의 의미를 가진 소식이나 누군가에 대한 간절한 갈구함 속에 내면지식도(그것 만만 감시울타리) 등식에 의하여 사물과 사람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투게」) 오히려 밀폐된 상황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안식을 취한기도 (「선생과 황제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과 같은 이유에서 평론가 김주연은 그의 세계를<상속의 이상주의>라고 했고, 김병익은 그의 소설을<실존주의적 소설>이라고 명명하여 있다. 우리는 아무도 그의 비극적 세계인식이 어떤 방향과 지평으로 확대되고 심화되어 나갔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이제 우리는 그의 작품의 탐구가 삶과 세계의 근원적인 상황에 대한 더욱 깊이있는 성찰에 의하여 첫 발림되게 될 변화, 예의 주시할 의무를 갖는다.

<다음은 시인 이유경 편>

「숨은신(神)」, 그 비극적 세계관

루시앙 골드만 작품론

인문과학에서 연구의 주제이며 대상인 인간은 개인적 삶인지 사회 혹은 사회적 집단 모두 법칙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총체적인 인식이 가능하다. 이말은 사고와 행위의 총체인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며, 경험주의나 합리주의가 상정한 원자론적 개인 혹은<낱도 낱도 없는 단자(單子)>라는 스피노자식의 고립된 개인이란 부의미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사회속에서 인간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이 제기하는 문제에 의미있는 대답을 주기 위하여 세계를 자신의 형상상식으로 변형시키게 된다. 즉, (1)모든 인간 행위는 특정한 상황에 의미있는 회답을 주려는 시도이고, (2) 따라서 행위의 주체와 객체—환경—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성격을 갖는다. 모든 인간 행위는 행위의 주체와 주위세계 사이의 좁혀 나은 균형을 세우려 하는데, 그때 언어진 잠정적인 균형이 인문과학 또는 미학의 작품과 같은<외미있는 구조>의 형태로 표현된다. 따라서 그에 대한 연구는 그 작품의 내적구조를 밝힘으로써<이해>하여야 하고, 그 이해된 구조를 그것을 둘러싼 더 큰 구조에 삽입함으로써<설명>해야 한다. 그러므로 설명의 과정은 [미학]는 구조의 발생과 기능에 대한 진실을 준다. 이와 같은 보편과 전체 사이의 계속되는 왕복과정은 구조화와 해체 구조화 작용을 계속하는 변증하는 상의 구조를 확대하게 해 준다. 골드만은 이 방법론을 사용하여, 라신느의 비극과 「팡세」 등의 작품의 이해를 하고 그 것을 방식의 국단의 세계관에 연결하여 의미있는 구조를 설명한 후에, 극단적 장세다음은 다시 두이 14세와의 법복귀족에, 다시 그것은 17세기 프랑스 계급구조 전반에 삽입되어 작품과 그것을 둘러싼 사회 경제적 상황과의 상응관계를 통해<비극적 세계관>의 의미를 주출해 낸다.

그때 그는 제한적이고 감정된 수 있는 도구로서<세계관>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1) 집단적인 경험사항이 아니라 개인적 사고의 직접적 표현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의 개념적 도구이고 2) 개인을 초월한 초개인적 실재이고 3) 명이상학적이거나 사변적인것이 아니라 집단의식이라는 공통체—가족, 경제적 혹은 직업적 단체, 지적 혹은 종교적 공동체, 국가—의 표현이며 4) 한 그룹의 구성원들을 결합시키고 그들과 다른 그룹과 대립시켜 주는 통경, 사상, 감정의 총체이다. 따라서 세계관은 사회적 사실이며 그룹의식이 네 위에 그는 여러 그룹 중에서 지적이고 예술적인 창조와 삶에 가장 중요한그룹은 바로<사회계급>이다. 왜냐하면, 경제적 기초에 의해 연결된 사회계급은 인간이 자신의 생존을 확고하게 하는 데에 그들의 지고와 행동의 대부분을 바친다는 이유에서 오늘날까지 인간의 이념적 삶에 가장 근원적인 중요성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계급의 감정, 사고, 통경—세계관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철학적, 문학적 작품은 결코 개인만의 소산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라는 공동체의 소산이다. 그렇다면 문화창조의 주체란 과연 누군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라신느의 비극이나 파스칼의 「팡세」가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공동작품이란 말인가? 그의견에 대해 골드만은 문화창조의 주체로는<에의적 개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즉, 한 그룹 혹은 개인의 통합적인 일관성—세계관을 개념적 혹은 상상적 차원에서 표현하는 정도에 따라, 에의적 개인은 철학자 혹은 작가가 된다. 그리고 작품이 사회계급의<가능한 의식의 최대치>를 표현하는 수록 그들의 작품은 위대한 것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작품은<사회적이며 동시에 개인적인>프롤레타리. 이상이 「숨은神」의 방법론의 대강이다. 그런데 같은 스윈지우드등 일부 비평가가 골드만의 방법론적 구조주의 류 사회계급은 유일하고 개인이 소멸하고 이분화라고 비판한 것은 타당하지않다.

왜냐하면 골드만은 집단의식이라는 현실의 형식과 예술작품의 형식 사이에 에의적 개인이 개념적 혹은 상상적 차원에서 형하는 정신의 형식—미셸 제라와의 말을 빌어 이라는 매개과정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이 골드만의 문학사회학을 변느는 마르크시스트들의 기피점이고 실증주의적인 종래의 내용 중심의 문학사회학과 구분지어 학주는 장점이라고 생각된다.

<원주만·영어과 3년>

「이해」와 「설명」을 통한 내면성추구

라신느의 비극과 파스칼의 철학작품에—

적용하여 파생 성립된 비극적 세계관

신간 소개

■이인호교수(본대학 독어과) 역(譯)—「세익스피어」 (장파리 지음), 「플리가미」 (에스터 빌라로 원작)

세익스피어는 인간 그자체로서 혹은 그의 문학세계로 현재까지 많은 해명이 불가능한채 하나의 수수께끼처럼 남아 있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작가의 생애와 작품을 연구한 많은 평전 (評傳) 중에서 장파리의 「자기 진술과 사건으로 본 W·세익스피어」는 가장 높이 평가되고있는 문제작.

「플린 가미」(Polygame) 란 말은 「일부다처의 섹스」라는 뜻으로 「한 남자가 두어겨를 거느릴 권리」 라고 부제 (副題) 가 붙어있다. 이책은 성 (性) 에관한 수많은 찬사와 반론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주로 「사랑이란 무엇이며 사랑이란 어떠할수 있는며, 또한 어자들은 사랑으로 무엇을하는가」 에대한 질음을 여성복유의 에리타면서도 착가은 감각으로비판하고있다. 두책공 (共) 히 이 (李) 교수의 유려한번역문 (文) 으로 독자를 매료시키는데 충분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김학수교수 (고려대)교 논문과 역(譯)—저 「제임스 피어」 (로이 빌라로 원작)

19세기말까지 한국을 다녀간 「유럽」 인의 수기는 오늘날 구 역사적 문화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오랫동안 서구인에게 「은자의 나라」 로 불리워 온조선왕조는 전통적인 쇄국정책으로 등 「아시아」에서 가장 뒤늦게 개항, 근대국가로의 전환에 큰 진통을 겪어야 했다.

이 작품은 1898년 7월에 한국을 다녀간 러시아 학가가 본 한국을 묘사한 책으로 당시의 북한방의 점모습을 벽안 (碧眼) 으로 살피고 있다. 호랑이 얘기, 장녀얘기, 자연묘사, 인간풍경, 정이상학적, 영혼론, 정치방동 다양한 종교와 당시의 국제정치사등의 묘사는 기록문학으로서의 근대사료에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민속사(刊) 상·하 각권 2,000원

「세익스피어」—명탐홀판사 간, 2,000원 「플리가미」—저 명단. 값 1,800원

이문만평

읍지…. 착하지….

大學生·成人을 위한 英語 Training Cente

時事英語社 直營

현대외국어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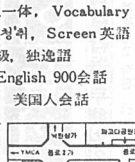
英·日·独 暖房(스팀)完備

● TIME, Digest, 英文解釈, 構文解釈, 英作文
TOEFL, 大学生四位一体, Vocabulary
Word Power, AFKN 청취, Screen 英語
● 日本語初級, 日本語中級, 独逸語
● English 900会話, New English 900会話
Spoken American 会話, 美国人会話

11月 3日 개강

수시등록 · 접수

☎ (269) 6626~7



현대외국어학원이 時事英語社 直營입니다.

검안·사진을 따라시력 광신안경

▲▲교도 내국장금 용시

광신교예중간 안과 1층 ☎ 3-0503

大學生을 爲한

英語·獨語·日語

開講 = 11月 3日

留学英語
高級英作
英文解釋①②③
TOEFL TIME
AFKN(콩신있음)
三位一体, DIGEST
English 900 会話
민병철生活英語 必須英語
Word power 基礎会話,
TOEFL 試驗英語
英人会話SCREEN 英語会話
Vocabulary10,000 (20,000)
TOEFL 留学英語
大学編入英語 成文綜合英語
英作文①②
留学国史 国民倫理
日語班(初·中·高級)会話班
独逸語文法完成, 独文解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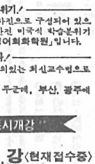
院長: 文昌淳

종로 2가종각지하EMI자리
72-9226, 74-2442

時事英語學院

당신도 유창하게 영어를 말할 수 있읍니다!!

한번 익힌 언어는 교정이 매우 힘듭니다!!



현재 / 서 교 원 박사
Dave Scofie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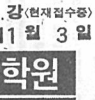
● 「영어」는 빠르고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한번 익힌 언어는 교정이 매우 힘듭니다. 특히 「영어」는 빠르고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당신도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영어회화」를 배우려고 생각하신다면, (SDA·삼육영어회화학원)을 지금 곧 찾아 주십시요.

● (SDA)는 세계적인 영어교육기관입니다.
지난 10년간 수10만여명에게 「영어회화」를 가르쳐 온 (SDA)는 일본·홍콩·대만·말레이시아·독일·싱가폴 등 6개국에 자매학원을 가진 세계적인 영어교육기관입니다.

● 전원 미국인 강사진으로 구성—원전 미국식 학습분위기./
미국에서 학위과 주수준전을 받은 전원 미국인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최대의 어학실습실과 학생휴게실을 갖춘 전원 미국식 학습분위기로 지상인도로부터 호텔을 방고 있는 장상 최대의 「영어회화학원」입니다.

● 실제적이고도 산 영어를 최신교수법으로 지도합니다./
어려운 문제만을 리리해, 실제적이고도 산 영어를 실지있는 최신교수법으로 지도하여 당신의 노력에 상당한 보답을 약속합니다.
(SDA·삼육영어회화학원)은 서울(청량리·영등포)에 두군데, 부산, 광주에 지점교 동시에 개강합니다.

서울 청량리·영등 부산 광주 동시개강



■ 개 강 (현재접수중)
➡ 11월 3일

삼육영어회화학원

SDA ENGLISH LANGUAGE INSTITUTES

■청량리 SDA/☎ 967-1275·7521 서울·위생병원 옆
■영 등 SDA/☎ 58-2270 청량리 코스코우퍼마켓 3층
■부 산 SDA/☎ 43-1036, 42-1843 대신동 371 507
■광 주 SDA/☎ 3-8903·8904 (월요휴 120)

월간 월刊 大学生講座

英語·日語
独·佛·中·西
英文解釋 英作文
TOEFL 美人会話
WORD POWER
실용종합영어 실용기본영어
英語실력기초 TIME

☆大学編入강좌 (国·英·數)
종로 2가네거리 파고다캐이드건너편
73·5788, 5789 74·1817, 6307, 6309

官認 I.L.I. 學院